

January 14 탐심 이기기, 전적인 신뢰로

• 누가복음 12:13-34

어떻게 하면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대상 29:14). 헌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헌금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축복을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헌금하는 순간 이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물질의 소유권을 훈련시킵니다. 특히 십일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내 소유'와 '나에게 맡겨진 것',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 소유로 여기는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움켜쥐게 되고, 이것은 곧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감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 12:20).

탐심을 버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시 23편). 다윗은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탐심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데 탐심이 생길까요? 다윗의 만족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인정에서 나왔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눅 12:30)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먹이실 주님을 신뢰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눅 11:3).

나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까?

- 1 어제 나를 먹이신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먹이실 것을 믿습니까?
- 2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 뜻대로 쓰시도록 내드립니까?